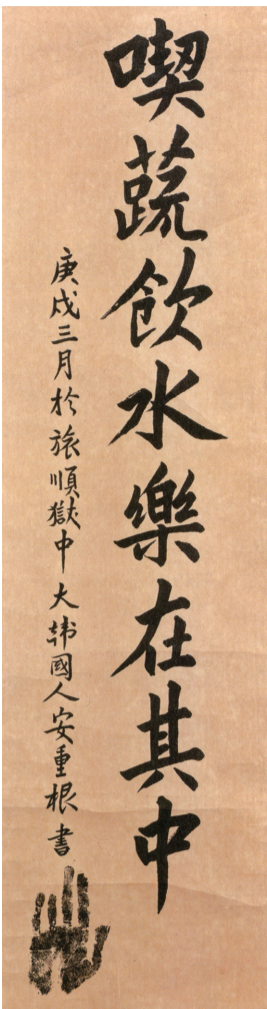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친필 유물을 감상하다



안중근 의사 친필 유물 '씩소음수락재기중'

광복 80주년 안중근 유물 특별전
3월 1일~6월 29일 동곡뮤지엄
‘喫蔬飲水樂在其中’ 첫 공개 눈길



순국 당일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수의를 입고 찍은 안중근 의사의 모습.

지난 2022년 발간된 김훈 작가의 ‘하얼빈’은 ‘동양 평화’를 주창했던 안중근의 삶과 정신을 오롯이 담은 장편 소설이다. 안중근을 서사화한 작품은 작가 스스로도 인생 과업이라고 여길 만큼 중요한 주제였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우민호 감독의 ‘하얼빈’은 안중근 외에도 다수 ‘영웅’들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얼어붙은 두만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구성과 영상미가 강한 울림을 선사했다는 평들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안중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소설과 영화 외에도 다채로운 장르로 콘텐트화됐다. 그만큼 안중근은 한 개인을 넘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결연한 의지는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어지러운 시국과 맞물려 그의 용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더욱더 빛을 발한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안중근 유물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은 오는 3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유물’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안중근 의사의 미공개 친필 유물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동화평화사상 등을 아우르는 자료들이 출품됐다.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안중근 의사의 삶과 업적 외에도 그의 정신과 사상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뒀다”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 안 의사 순국 115년과 맞물려 어느 해보다 그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은 첫 공개되는 ‘喫蔬飲水樂在其中’ (씩소음수락재기중, “나물 먹고 물 마시니 그 속에 즐거움이 있네”). ‘논어’ ‘술이 편에 나오는 문구



광복 80주년을 맞아 동곡뮤지엄은 안중근 의사의 미공개 친필 유물을 선보이는 특별전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유물’을 오는 3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펼친다.

로 소박한 삶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안 의사의 답백한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인간 본연의 삶에 대한 통찰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유물의 아래 쪽엔 안 의사의 손바닥 낙관이 주는 울림도 간단치 않다. 손가락 마디와 움푹 팬 손바닥의 음영에선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전시실에는 순국 당일 어머니가 지어주신 수의를 입고 있는 안 의사의 모습을 비롯해 부인과 아들 사진, 부친 안태훈과 동생들 모습, 모친 조마리아 등 가족과 관련된 사진도 다수 비치돼 있다.

특히 안 의사 의거 당시 장면을 담은 삽화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통쾌함, 비장미를 엿볼 수 있는 자료다.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경 총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

가 부축받고 있고 안 의사가 체포되는 장면을 담았다.

이밖에 원형 이토 히로부미의 100여 년 전 유묵도 볼 수 있다. 유묵은 가파른 절벽, 깊은 골짜기, 천 길 높이의 푸르름, 매화꽃의 향기 등 자연의 고요와 장엄을 응축해서 표현했다.

김대환 관장은 “안중근의 직함에 담긴 ‘대한의군 참모중장’은 군대의 장군으로서 국권을 침탈한 이토 히로부미를 ‘적멸’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안 의사가 남긴 유묵과 자료를 통해 그의 굳은 정신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관람이며 문의는 동곡뮤지엄으로 하면 된다. 한편 동곡뮤지엄은 동곡미술관·박물관의 통합 명칭으로 올해부터 공식 사용되고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인문학 즐기고 다락방 음악여행

동구 인문학당, 3~7월 참여 인문 프로그램 진행

영화 인문학 극장, 다락방 음악여행, 바른 먹거리 ‘기후밥상’, 나·너·우리, 생각모음단 ...

동구 인문학당은 70여년된 근대 가옥과 신축 공간이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이다. 양옥과 한옥이 결합된 장



오오모리 카즈키 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은 고풍미와 세련미를 발하며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잇고 있다. 동구 인문학당이 올해도 ‘참여 인문 프로그램’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로 짜여져 있다.

‘영화 인문학 극장’ (3월 11일~7월 15일, 격주 화요일 오후 7시)은 프로그램며 조대영 씨의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1970~80년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텍스트다. 작품을 감상한 뒤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수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인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오오모리 카즈키 감독이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다.

조대영 프로그래머는 “이번 영화 인문학 극장은 언어예술을 토대로 창작된 시각예술의 미학과 다채로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며 “특히 첫 시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하루키 데뷔작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창작 여정과 작품 세계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문형식 DJ가 진행하는 ‘다락방 음악여행’ (3~7월 첫 번째 수요일 오후 2시)은 추억의 가요들을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들을 수 있다. 레코드판(LP)으로 70~80년대 가요를 들으며 과거로 추억여행을 떠나는 시간이다. 첫 강좌는 3월 5일로 주제는 ‘노래하는 철학자_김광석’.

기후 위기를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도 있다. 바른 먹거리 ‘기후밥상’은 (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각각 주제는 저탄소 식탁과 비건(3월), 식량 위기(4월), 5월 생물 다양성(5월), 로컬푸드(6월), 음식 생태계(7월) 등이다.

아동·청소년의 인문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나·너·우리, 생각모음단’은 인문과 문화, 예술, 교육을 함께 연계해 예술 경험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비는 무료(단, 재료비 별도)이며 선착순 모집. /박성천 기자 skypark@

조르주 비제 ‘카르멘’ 영상으로

ACC 수요일극장, 3월 5일 문화정보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오페라 극장 ‘아레나 디 베로나’ 공연 실황을 광주에서 영상으로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수요일극장 ‘카르멘’을 오는 3월 5일 오후 7시 문화정보원 B3 극장3에서 펼친다.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1913년 제작된 오페라 ‘카르멘’을 영상으로 만나는 자리다.

스페인 세비야에서 위병군무를 서던 하사관 ‘돈 호세’는 병든 어머니와 약혼녀를 둔 순진한 청년이다. 담배 공장에서 일하던 집시여인 카르멘은 동료와 다뤄 감옥에 수감되고, 호세는 그녀를 호송하는 임무를 맡는다.

카르멘의 유혹에 넘어간 호세는 고의로 그녀를 도망치게 하고, 집시 밀수꾼 패에 합류해 쫓기는 신세가 된다. 무참히 짓밟힌 사랑과 비극 속에서 두 남녀는 어떤 선택을 이어갈까.

영상은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감독 프란코 제피렐리가 1995년 연출했던 무대를 조르주 비제의 음악과 함께 재현한다. 짙고 깊은 저음의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자가



오페라 ‘카르멘’

©Foto Ennevi

카르멘 역을 소화해 이목을 끈다.

돈 호세는 브라이언 자그레, 에스카미요 역은 클라우디오 스퀴라 등 배우가 출연해 열연한다. 이 외에도 가브리엘레 사그나, 비아조 파주티 등이 스크린을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ACC는 3월 19일 전통무용극 ‘호동’, 4월 2일 ‘명

색이 아프레질’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같은 달 16일 연극 ‘붉은 머리안’, 5월 7일 존 크라코의 ‘말팔랑이 길들이기’, 5월 국립극단의 ‘조씨고야’와 ‘탄신’도 광주에서 만날 수 있다. 무료 관람 (200석).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스토리 구상부터 채색까지 ‘그림책’ 만들어요

시립 무등도서관, 3월 8일~5월 10일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책’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 성인들의 유년 시절 동심을 환기하고, 아이들에게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준다.

시립 무등도서관(이하 도서관)이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을 오는 3월 8일~5월 10일(오전 10시) 도서관 사회의실(1층), 및 프로그램실에서 펼친다. 김미현 문화예술교육사가 강사로 나서며 매주 토요일 총 10회, 초등3~6

학년 총 12명 대상.

1회차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으로 다양한 그림책,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시간이다. 이어 2회차 ‘편집과정 및 출판기획’은 책의 명칭부터 마인드맵으로 글감을 찾는 방법, 주제 선정 등을 알려준다.

초고 짜기, 콘티 작성 및 화명 구성, 캐릭터 그리기를 배우는 ‘스토리 구상’은 3회차에 예정돼 있다. 이어 여덟

개 중심 장면을 구성하는 ‘스토리보드 완성’은 4회차에 진행된다.

5~6회차는 ‘스케치하기’, 7~9회차는 원화를 완성하고 최종 탈고하는 ‘원화 채색’ 단계로 채워질 예정이다. 10회차는 제목을 정하고 표지 그림을 완성하는 ‘마무리 및 표지 그림’이 진행된다.

문헌정보과 정원영 사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내는 이번 프로그램은 출판 기획부터 스토리 구상, 스케치와 원화 채색 등 그림책 출판의 전 과정을 배우는 기회”라며 “그림책 만들기에 관심이 있고 모든 회차에 참석 가능한 분 위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료(재료비 1만 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유선 신청.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